Session 01 하나님을 사랑하기 : 크고 첫째 되는 계명 (Loving God : The First and Great Commandment)

I. 전심으로 사랑할 것으로의 부르심 :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짐

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 22:37-38)

A. 창조계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이며 영원한 목적은 그분 자신과 함께 할 충성된 자녀들을 세우시며,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맬 영원한 동반자인 신부들을 세우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완전하게 속한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8 내(아버지)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예수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시 2:8)

1. 주권적인 순종 :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들이 예수님께 순종하도록 하실 것이다 (빌 2:9-11).

2. 자원하는 사랑 :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백성들을 세우실 것이다.

B. 사랑으로 함께 멍에를 짐 :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 마음과 뜻(생각)을 다해 그분을 사랑할 것을 원하시는데, 이는 그분이 마음과 뜻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바와 같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이처럼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힘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그분께 다시 드릴 수 있는 기름부음이다.

5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롬 5:5)

C.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초자연적으로 강건케 되기를 기도하셨다.

26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 17:26)

D. 하나님의 목적은 신부를 택하시고 세우셔서, 이들이 자원하는 사랑으로 준비되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첫째 계명은 교회의 첫째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7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

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계 19:7)

E. 하나님의 4가지 사랑 :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로 흘러넘치며,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사랑. 우리는 사랑받기를 갈망한다. 왜인가?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F. **이 코스의 기본적인 전제** :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된다. 우리는 뒤에 나오는 과에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G. 이 장은 우리의 삶에서 첫째 계명이 가장 우선시되기 위해, 우리의 삶과 사역을 지속적으로 조정해나가는 지혜와 아름다움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랑의 정의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분을 초청해야 한다. 그분은 우리를 자원하는 사랑의 관계로 억지로 떠밀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마음으로부터 초청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우리는 성실함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그분을 추구해나가야 한다. 우리가 이루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을 향한 빛나며 불타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눅 11:36).

II. 하나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A.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순종의 영 가운데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것으로 정의하셨다 (요 14:21; 신 6:1-9).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을 향해 노래하거나, "우리가 만들어낸 신"에 대해 감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을 말한다.

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 21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 2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 (요 14:15-23)

B.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마지막 시대의 핵심적인 이슈는,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관계없이 사랑을 추구하는 인본주의적인 문화를 기반으로 사랑을 정의하느냐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사랑을 우리로부터 받기를 원하신다. 현재 미국의 교회 문화 안에는 사랑과 자유에 대한 수많은 정의들이 있다. 그분은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누워있는 것으로 사랑을 정의하고 계시지 않는다.

III.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첫째 계명이다 : 이는 하나님께서 첫째로 요구하시는 것이다.

A.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최우선 순위의 일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선택 사항 중 첫째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그분을 향한 사랑을 기경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목적이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을 사랑함에서 끝나지 않고, 이로 인해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되며 다른 이들(성도, 성도가 아닌 자들까지)을 사랑하는 것으로까지 넘쳐난다.

B.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소유하신 분이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가장 원하시는 것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그분이 가장, 첫 번째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이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구하고 계신다. 우리 삶의 미스터리는 이 진리 안에서 풀린다. 그분은 우리를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자원하는 사랑을 원하신다. 하나님께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 당신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 찾고, 구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하고 계신 것을 찾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찾고 있는 것들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이다.

C.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 우선 순위의 일이며, 하나님의 우선순위 목록의 1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사역의 첫째 목적과 성공의 척도로 삼아야 한다. 수적인 성장은 좋은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나 그분의 기쁨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되지 않는다. 나는 성령께서 당신을 인치셔서, 이것이 항상 당신의 사역 계획과 사명의 최우선 순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D.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구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에 있어 가장 우선이 되는 일은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그분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그분에게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주님, 당신이 제 삶에서 하고 계신 일은 무엇입니까? 왜 어떤 일들이 계속되도록 두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찾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를 깨우셔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계시하고 부어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사랑을 위해 일하신다.

E.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불같은 헌신을 가지며 의를 위한 과격한 선택을 하는 것으로는 우리를 계속해서 유지시켜주지는 못한다. 어떤 사역에 속해있거나 도시나 나라를 변화시키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의 감성 안에서 작을지라도 성령님의 지속적인 사랑의 일깨워주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비전에 대한 수고는 우리를 감정적으로 지치게 만든다. 사랑으로 감동된 마음은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IV.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큰 계명이며, 소명이자 라이프스타일이다.

A.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또한 이는 우리 마음이 추구해 나가야 할 **가장 큰 부르심**이며, 다른 이들을 향한 사역에서도 추구해야 할 **가장 큰 부르심**이다. 이는 이로 인한 열매가 영원히 남기 때문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위대한 삶의 길이며, 그분이 사역을 평가하시는 가장 큰 기준이기도 하다.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부르심은 사람들을 이에 대해 초청하는 것이다.

B.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가장 위대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매 순간을 그분께 순종을 통한 사랑을 드림으로 그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이는 가장 급진적인 라이프스타일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며 가장 크다고 여기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사랑의 반응이다. 그분이 우리의 시간과 재정, 재능을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것들을 그분께 드릴 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게 되기 때문이다.

C. 당신은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타협을 회개할 때마다, 이는 그분의 마음을 움직인다. 우리가 그분 앞에 앉아있거나(눅 10:38-42), 그분을 사랑함으로 인해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작은 행동(히 6:10; 마 10:42)에도 그분의 마음은 움직인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 아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역의 크기가 우리의 영향력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D.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이들을 그들의 사역으로 끌어들이거나 설교와 노래를 듣게 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다. 더 효과적인 네트워크와, 홍보와 조명 등으로 우리는 때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다. 우리가 사역에서 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E.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그분의 사랑을 알며, 느끼고, 다른 이들을 향해 그 사랑을 넘쳐 흘려보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기쁨으로 넘치며,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다.

F.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며, 그 사랑을 표현하는 기름부음이다.

G.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가올 시대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는 우리가 자신의 가장 위대한 부르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당신은 단지 삶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음으로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당신이 비록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가장 위대한 사람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 5:19)

H. 우리를 가장 강건케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드리는 사랑에 기반한 순종이다. 이는 가장 변함이 없는 순종이 될 것인데, 상사병에 걸린 사람은 사랑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견디어 낼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막을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를 잘못 대하는 사람들을 향한 쓴 뿌리에 걸려 넘어짐 없이, 하나님을 넘치도록 사랑하는 자로서 살기를 결정해야 한다.

I.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름부음은 우리의 가장 큰 재산이다. 사랑에 대한 상급으로 우리는 사랑할 힘을 가지게 된다. 그 어떤 희생도 그분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비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사랑에 빠진 사람을 그만두게 만들 수 없다. 우리가 그만두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로 인해 그만둘 수 없게 된다.

J. 우리의 각자의 개인적인 영적 정체성은 다음과 같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이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나는 성공한 자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느냐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V. 첫째 계명이 최고의 가치임에 대한 계시

A. 우리에게는 첫째 계명이 최고의 가치임에 대한 계시가 필요하다. 이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평가의 기준이다. 하나님께서 삶을 평가하는 기준은 인간과 다르신데, 이는 그분은 모든 돈과, 지혜와, 명성과 영향력, 시간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자라났느냐의 부분이다.

B.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가장 위대하게 여기시는 지를 추측해볼 필요가 없다. 어떤 이들은 인기 있는 사역의 흐름을 좇아가기 위해 자신들의 사역 방향을 정기적으로 바꾼다. 우리는 우리의 사역 초점을 최근 흐름에서 얻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하나님의 가장 높은 목적임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선두주자들을 세우고 계신다. 그들은 첫째 계명을 자신의 사역과 삶의 주요 초점으로 삼을 것이다.

C. 에베소 교회는 초대 교회 시대의 대 부흥의 중심이었다(행 19-20장).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해나가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연인이 되기보다,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 되어버렸다. 연인은 언제나 일꾼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낸다. 우리가 친밀함 없이 일을 할 때면, 우리는 종과 같이 일한다. 신부의 마음은 섬기고 수고함을 통해서 새롭게 된다. 헌신에 대한 기초가 없는 섬김은 곧 바닥나버리고 말며, 실망과 상처만이 남는다. 따라서 이 섬김은 몇 십 년 동안 지속되기 어렵다.

4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계 2:4)

D. 사단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예수님께 전심으로 사랑과 헌신을 드리는 것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3 뱀(사단)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후 11:3)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브를 속인 것같이 너희의 마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부패하여 그 같이 떨어져 나갈까 두려워하노라 (한글 KJV, 고후 11:3)

E.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단호히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사랑을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기로 결정해야 하며,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것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 안으로 깊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집중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른 어떤 일보다 더 이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14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표준새번역 : 그가 나를 간절히 열망하니)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시 91:14)

F. 예수님께 넘치는 사랑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고백은 이와 같다, "하나님, 당신께서 저를 강건케 하셔서 제가 예수님께 더욱 많은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최소한의 분량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좋은 편을 선택해야 한다. 그 어떤 누구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결정해주지 않는다.

42 ...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눅 10:42)

G. 하나님 앞에서의 급진적인 삶의 정의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가 단지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특별한 일을 했다고 해서 급진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없다.

H.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내 평생에"라고 언급한 것처럼 수 십 년간 유지해 나왔다.

4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 27:4)

I. 다니엘은 기도의 삶을 열정적으로 수 십 년간 지속해 나왔다(약 16살부터 82살까지).

10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BC 605-539년, 66년 동안)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단 6:10)*